

朝鮮博物學會雜誌, 제10권 38호, 쇼와18년(1943년), 29~35.

남조선 점류채집기

석주명(경성제국대학의학부 미생물학 교실)
D. M. Seok : Notoj pri la koleltado de papilioj en la suda la suda Koreujo.
(쇼와 18년 2월 18일 수령)

I. 서언

전편에 보고했던 바와 같이 약 1개월간의 북한 채집여행을 마치고 개성으로 돌아와 열흘 정도 정리 겸 휴식을 취했다. 그리고 드디어 남한으로 여행을 떠난 것은 8월 2일이었다. 이미 시간적으로는 늦어 있었고 조선박물학회, 경성일보사 공동주최로 미나카이(三井)백화점에서 열리는 나비전을 위해 8월 하순이 되기 전에 귀경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때문에 출발할 때부터 이 여행에 큰 기대는 걸지 않았다. 게다가 남한을 엄습한 심한 가뭄은 나비의 발생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라 채집여행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시기였다. 실제로 결과도 별로 좋지 못했고 이 점에서는 북한의 여행과는 정반대였다. 양자를 비교해보면 남한으로의 여행은 시시켰다. 그렇지만 자세히 그 결과를 살펴보면 기록할만한 가치가 없다고도 할 수 없기에 글을 쓰기로 했다.

이번 코스는 시간 관계상 북한 채집여행과는 반대로 주로 철도 연선을 채집하기로 했다(지도 첨부). 그것도 될 수 있는 한 간이역과 같은 산간의 역에 많이 하차하기로 했다. 이때 유의해야 할 것은 간이역에서 하차하는 경우 기차표는 그 이후 구간이 무효가 되므로 미리 그 간이역까지의 기차표를 사 두어야만 했다. 현재 조선에서는 철도운임이 원거리 체감제가 되어 있지 않으며, 세금 관계로 원거리일수록 운임은 오히려 비쌌다.

지도 첨부

남한의 조사는 철도연선으로 자연은 거의 파괴되어 있어, 최적의 채집장소를 찾기 어렵고 오히려 도회지의 신사 주변이 채집에 적합할 정도였다. 실제 채집에서는 초라하게 느끼는 일이 많았다. 하지만 그럴수록 하루라도 빨리 조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도 했다.

II. 채집일기

8월 2일(일) 비 온 뒤 맑음

비가 와서 출발을 미루고 있다가 14시 10분 청경리(淸京里) 출발, 14시 56분 팔당(八堂) 도착. 부근의 산은 경성을 출발하여 처음으로 보는 산으로. 이 경경선(京慶線)상으로는 경성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의 좋은 채집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부근을 채집. 17시 41분 팔

당 출발, 18시 55분 양평 도착.

8월 3일(월) 맑음

가까운 백운산을 채집해 봐도 시기가 늦은 탓인지 성적은 불량. 하지만 줄꼬마팔랑나비(スヂグロチャバネセセリ)와 수풀꼬마팔랑나비(ヘリグロチャバネセセリ)를 비교적 풍부하게 채집할 수 있었다. 16시 10분경 양평 출발, 도중의 양동, 간현은 괜찮은 채집지로 보였지만 하차할 여유가 없다. 원주에 가까워지자 기분 좋게 큰 산이 전망에 나타났다. 치악산(일명 남대산 1132m)이다. 18시 37분 원주 도착. 원주는 느낌이 좋은 시골 마을이다.

8월 4일(화) 맑음

아침 일찍 치악산으로 가서 채집을 시도했다. 국형사, 보문사를 지나 위쪽으로 1km 정도 전진했지만 풀숲으로 가로막혀 중지하고 하산했다. 도중에 보문사, 국형사 구간에서는 약 40분간 노력하여 이번 여행에서 유일하게 흑백알락나비(ゴマダラテフ) 여름형 1개를 채집했다. 내일 아침에는 반곡역에서 정상의 상원사에 오르기로 했다.

8월 5일(수) 맑은 뒤 비

6시 15분 원주 출발, 6시 40분 반곡 도착. 우연히 인부 우모군을 고용해서 정상으로 향했다. 비가 오는 가운데 우군의 안내로 정상의 상원사까지 무사히 도착. 부득이하게 1박. 부근에는 먹그늘나비(クロヒカゲ)가 꽤 많이 보였고 상원사 바로 앞 빗속을 행진하면서 나뭇잎 뒷면에 앉아 있는 먹그늘나비를 몇 마리 맨손으로 채집했다.

8월 6일(목) 맑음

8시에 출발하여 14시 반에 반곡역으로 돌아갈 때까지 많이 채집했다. 그 중에는 번개오색나비(テウセンコムラサキ)의 원형 우, 북방거꾸로여덟팔나비(アカマダラ)여름형, 황세줄나비(オホキミスズ), 파리팔랑나비(ホシチャバネセセリ) 및 수풀떠들썩팔랑(コキマダラセセリ)의 검은 형 f, venata 등 북방계 나비가 포함되어 있고, 북방거꾸로여덟팔나비(アカマダラ)는 조선 남단의 기록이 된다. 또한 큰녹색부전나비(オホミドリシジミ)는 상수리나무 숲의 같은 한 장소에서 7,8마리나 채집했다. 나머지는 지리를 잘 몰라 상기 코스를 따라 올랐으나 치악산 등산은 오히려 다음 역인 신림이 순로로 더 나올 듯하다. 결국 치악산은 3일간 채집하고 성적도 상당히 올랐다. 정말로 좋은 산으로 기회가 되면 다시 오고 싶은데, 다음 기회에는 신림에서 왕복해보고 싶다. 15시 7분 반곡 출발, 16시 38분 제천 도착.

8월 7일(금) 맑음

의림지, 용두산 부근까지 편도 2리 정도나 걸어 채집했지만 결과는 별로 좋지 못했다. 대체적으로 왕복 4리 정도를 채집하면 성적은 오르기 마련인 것을.

예정보다 일찍 11시 40분 제천 출발, 12시 26분 충북 단양 도착. 읍내까지 걸으면서 채집했지만 역시나 성적불량. 다시 서둘러 14시 52분 단양 출발, 15시 29분 죽령 도착. 곧바로 부근 채집을 시도해봤지만 완전 불량. 하지만 여기서 참까마귀부전나비(テウセンツマアカカラスシジミ)를 포획한 것은 의외였다. 전체적으로 크게 실망한 탓에 다음 날 아침에는 인부를 고용하여 회방사까지 걷기로 했다.

8월 8일(토) 비

어젯밤부터 내린 비는 드디어 큰 비로 바뀌었다. 여관은 불결한데다 비까지 쎄다. 식량난도 있어 이곳에서는 장기전은 불가하다. 돌아오는 길에 회방사에 하차하기로 하고 아침밥도

거른 채 세차게 내리는 빗속을 뚫고 7시 33분 죽령 출발, 좀처럼 비가 그치지 않아 결국 경북 안동 역까지 왔다. 10시 46분 경북 안동 도착. 하루 휴양.

8월 9일(일) 비

안동 역시 귀로에 다시 들르기로 하고 8시 25분 안동 출발, 9시 53분 예천 도착. 시가지를 둘러보고 12시 27분 예천 출발, 13시 33분 함창 도착. 전부터 만날 약속을 했던 김정근 군을 만나 며칠 동안 김군의 안내를 받아 채집은 물론 여러 모로 신세를 졌다. 이에 김군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바이다.

8월 10일(월) 구름 뒤 맑음

어제 밤에 김정근군과 상담하여 오늘은 문경군 조령(일명 이화령 548m)에 채집하러 가기로 했다. 날씨는 나빠도 동 군청에는 동창인 김병윤군도 있기에 일단 가보기로 하고 7시 28분 함창 출발, 7시 35분 점촌 도착. 그리고 버스를 타고 9시 점촌 출발, 10시 반에 문경 도착. 문경 도착 전 멋진 직선 도로 위의 벚꽃 가로수는 정말로 아름다웠다. 문경도 느낌이 좋은 시골마을로 동네에서 홍점알락나비(アカホシゴマダラ)와 부처나비(ヒメジャノメ) 등을 볼 수 있었다. 오후에는 조령방면의 제2관문까지 2리 가까이 왕복하며 채집했는데 의외로 날씨도 좋아서 호성적을 올릴 수 있었다. 역시 문경의 명성에 어긋나지 않는다. 지금까지 주의를 기울여 온 남방부전나비(ヤマトシジミ)를 이곳에서 처음으로 발견했고, 남한 미기록종인 꽃팔랑나비(アカセセリ)도 여기서 채집했다. 언젠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곳 조령을 한 번 넘어보고 싶다.

밤에는 낮부터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김병윤군의 초대를 받아 4명이 24시가 넘을 때까지 이야기 꽃을 피웠다.

8월 11일(화) 맑음, 더운 날씨

8시 반에 문경을 출발하여 함창을 지나 상주로 직행, 12시 5분에 상주 도착. 상주에서는 형식적으로 채집을 시도하고서 16시 13분 상주 출발하여 함창으로 돌아왔다.

8월 12일(수) 맑음, 더운 날씨

김정근 군 집안의 모든 분들의 배웅을 받으며 8시 29분 함창 출발, 10시 31분 금천 도착. 오후 근처에서 채집을 시도했으나 실로 보잘것없는 곳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채집하지 못했던 극남노랑나비(ツマグロキテフ)를 처음으로 손에 넣을 수 있었다.

8월 13일(목) 맑음, 더운 날씨

8시 58분 금천 출발, 9시 40분 구미 도착. 금오산 중턱까지 왕복하면서 채집했지만 성적은 오르지 않음. 하지만 좋은 장소여서 다시 한 번 오기로 함. 15시 16분 구미 출발, 16시 19분 대구 도착.

8월 14일(금) 맑음

이른 아침 석원영군의 안내로 근교로 채집을 나갔다. 성적은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미기록종인 풀흰나비(テウセンシロテフ) 1개를 채집했기 때문이다. 오후에는 어제 전화로 약속한 경북고녀(慶北高女) 白神교장을 방문하여 예전에 백갑옹(白甲鏞)군이 수집한 곤충표본을 볼 수 있었다. 이 수집품은 내용이 풍부하여 한 번에 그곳의 나비상을 알 수 있게 되어 고마웠다. 다만 풀흰나비는 이 수집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8월 15일(토) 구름 뒤 비

7시 35분 대구 출발, 10시 41분 삼랑진 도착, 12시 45분 삼랑진 출발, 13시 48분 창원 도착, 16시 버스로 창원 출발, 17시 마금산온천 도착. 오늘은 여기까지 올 예정은 아니었지만 비가 내려 도중하차해도 어쩔 수 없는지라 여기 온천까지 온 것이다.

8월 16일(일) 맑음

오전에 근처를 채집했으나 잡힌 건 암떡부전나비(ツバメシジミ) 1개 뿐.

8월 17일(월) 맑음

9시 20분 버스로 마금산온천 출발, 10시 반 구마산 도착. 옛 동료인 이영석씨의 안내를 받아 근처를 채집하고 신세를 많이 졌다. 이에 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8월 18일(화) 맑음

이씨의 안내로 9시 37분 북마산 출발, 10시 7분 산인 도착. 부근을 채집했지만 성적은 좋지 않다. 이 여행에서는 유일하게 극남부전나비(シルヴィアシジミ)를 5,6마리 채집했다. 하지만 남방부전나비는 매우 적어 겨우 1,2개 채집한 것에 불과했다. 이씨의 배웅을 받으며 12시 11분 산인 출발, 13시 17분 갈촌 도착.

이곳 갈촌도 산촌으로 주변 또한 남한 공통의 경작지가 대부분으로 채집에 적합한 장소는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 갈촌에서는 뜻밖의 수확이 하나 있었다. 오늘은 음력 7월 7일이라서 마을의 한 청년이 긴 나팔을 불고 있었다. 자세히 봤더니 내가 예전에 내몽골의 라마사(喇嘛寺)에서 8월 15일 축제 때 본 긴 나팔과 같은 것으로 보였다. 이 부근 마을에서는 군데군데 볼 수 있는 것인 듯 했고 그 밖에도 약기 일식이 있어 축제 같은 때에는 사용한다고 했다. 남한에는 몽고풍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것을 직접 목격하고 나서는 여행의 유쾌함을 한층 더 느꼈다.

16시 31분 갈촌 출발, 17시 8분 진주 도착. 곧바로 해인사행 버스를 알아봤지만 여러모로 불편이 있는지라 내일 아침 기차로 온 길을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밤에 석루에 보트를 띄워 잠시 청유(淸遊)함

8월 19일(수) 맑음

진주공원에서 채집을 하고 10시 35분 진주 출발, 14시 58분 진영 도착. 근처를 채집했지만 실패. 남한은 인구가 조밀하고 농업 집약도는 높은데다 산양을 방목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은 완전히 파괴되고 있다. 진영처럼 역 부근에 꽤 큰 산이 있지만, 사방이 논에 둘러싸여 있고 산에는 산양의 방목으로 인해 대체로 자연 그 자체와는 거리가 멀었다. 17시 40분 진영 출발, 삼랑진에서 환승하여 18시 52분 밀양 도착.

8월 20일(목) 맑음

오전 근처에서 채집, 견학하고 11시 14분 밀양 출발, 12시 5분 남성현 도착. 긴 터널이 있는 부근을 채집했는데 생각보다 좋은 장소이다. 16시 3분 남성현 출발, 대구에서 환승해서 18시 55분 영천 도착.

8월 21일(금) 맑음

부근에서 잠시 채집하여 풀흰나비 1개를 포획. 9시 25분 영천 출발, 10시 21분 봉림 도착(군위군). 부근을 채집하고 13시 10분 봉림 출발, 13시 58분 의성 도착. 근처에 있는 산에서 채집하고 17시 반 의성 출발, 18시 35분 경북 안동 도착

8월 22일(토) 맑음

오전에 학교에 선배인 原口良策 교장을 방문하여, 이 학교 표본실에 있는 堀씨 등이 수집한 표본을 볼 수 있었다. 이 표본은 堀씨가 예전에 곤충세계(제 39권, 1935)에 발표했던 것으로 궁금했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지라 직접 보니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한 原口교장에게는 신세를 많이 졌다. 이에 그분께 깊은 경의와 사의를 표한다.

15시 4분 경상북도 안동 출발 16시 12분 영천 도착. 곧바로 부근에서 채집했는데 시골치녀나비(キイロヒメヒカゲ)를 잡을 수 있어서 유쾌함. 저녁에는 선배인 慶田景憲씨를 방문하여 앞으로 경북의 오지를 채집할 때 도움을 달라고 의뢰.

8월 23일(일) 맑음

8시 15분 영천 출발, 9시 15분 희망사 도착. 용폭(龍瀑) 및 희망사를 왕복하며 채집해보니 정말로 좋은 곳으로 다시 오기로 했다. 12시 38분 희망사 출발, 20시 40분 청량리에 도착하여 이번 여행을 종료함.

채집품 목록(생략)